

Elaine Phillips 박사, 성서 연구 입문, 세션 13, 선별된 사해 본문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세션 13, 선별된 사해 본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사해사본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그 중 세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상당히 다른 종류의 텍스트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박국 두루마리의 페셰르(pesher) 또는 해석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부분을 조금 검토한 다음 이 두루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복습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종류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콤란 근처에서 발견된 본문의 약 4분의 1이 어떤 형태의 성서 본문, 즉 그 단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검토를 통해 종파적 본문으로 옮겼을 때, 그것은 이 특정 공동체와 밀접한 본문이며,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강조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공동체였을지 탐구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강조점은 언약과 토라 연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제사장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암시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분명히, 문서뿐만 아니라 고고학의 측면에서도 이에 대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적 순수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복원된 사원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며 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의 전쟁. 그것은 우리가 탐구하려는 텍스트는 아니지만 확실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 간단히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우리는 종종 Essenes가 자동으로 그들에게 붙어 있는 레이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Essenes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거나 적어도 어떤 종류의 금욕적인 공동체가 언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마도 에세네 종파의 정체성과 성격에 대한 가장 좋은 출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본문들이 사두개인들과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했으며,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미묘하면서도 확고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왔고, 아마도 이를 주도한 사람은 로렌스 쉬프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에세네파를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공동체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기원전 150년대쯤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직과 예루살렘의 성전 직원들이 정확히 가장 모범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매우 경악했다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에 굴복하여 시내산과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패턴을 따라 그들은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애굽을 떠난 공동체가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예상했지만 종말 사건에 대한 기대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종말론적으로 초점을 맞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특히 공동체 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초기 발현들 중 일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우리는 다른 종파와 다른 사람들이 합류한 공동체를 갖게 되었고 여러분은 다소 강력한 공동체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AD 68년 로마인에게 멸망되기 전에 약간의 에세네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할 세 가지 본문,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묻고 싶은 질문의 종류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체의 규칙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이 1번 동굴에서 발견된 텍스트 중 하나였기 때문에 1Qs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Q는 쿨란(Qumran)을 나타내고, s는 히브리어 제목의 첫 번째 단어인 세렉(Serech) 을 나타낸다. 하야차드 . 따라서 커뮤니티의 규칙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텍스트는 해석적 텍스트의 예이기 때문에 이들을 결합할 것입니다.

페셔(Pesher)는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해석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페샤림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훔과 하박국 주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4QMMT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동굴 4는 거기에 4가 있고, 다시 Q, Qumran, 그리고 Mikzatma Sehat Torah가 그 줄 중 하나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문제의 종류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텍스트를 열고 흥미롭다고 말한 다음 그만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들 각각에서 어떤 주요 신학적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방금 검토한 요약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중 일부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질문입니다.

Serech 에 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HaYachad 또는 Mikzatma Sehat Torah, 4QMMT의 어떤 성경 텍스트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까? 물론 나훔과 하박국, 나훔과 하박국은 주목받는 본문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묻고

싶은가? 결국, 적어도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십이사도서에 포함된 것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소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글쎄, 두 번째 주요 초점은 부전공과 전공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까? 주요 인물은 누구입니까? 주로 등장하는 그룹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커뮤니티에 대해 뭔가를 배우려는 우리의 의도에 다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누가 이 공동체의 일부였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처음 몇 분 동안 커뮤니티 규칙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박국 페세르의 칼럼, 즉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부분을 볼 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본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 규칙에 따른 것이며 철자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고 싶은 것은 딱 하나다. 여기서 이 두 단어는 동일해 보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이 확증되게 하고 확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특히 이 본문의 신학적인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말한 후에 회중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기요, 아멘, 아멘.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과 관련 인물의 관점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 5월이나 7월, 11월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네 개의 칼럼에는 신학적인 소개가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에서 우리는 커뮤니티가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공동체에 머무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공동체 생활의 일부였던 제약의 종류를 알아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와 요세푸스가 1세기에 에세네파를 언급할 때 이야기할 내용 사이에 몇 가지 상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반 사항과 벌칙은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옳지 않은 특정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규정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조금 더 다르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끝은 기본적으로 찬송가인데, 그것은 스승이라고 불리는 누군가의 찬송입니다.

나는 잠시 후에 그의 페르소나를 좀 더 풀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주기 위한 우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서문 질문에서 보았듯이 다음으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나타나는 핵심 인물은 누구입니까?'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했듯이 스승님의 찬송가인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주요 인물은 일종의 비밀스러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에 있었다면 일종의 영지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실제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며, 그러면 당연히 그는 계율을 지키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우두머리이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중요한 인물에 관해서는 신권이 이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우리는 옛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실제로 갖고 있고 또 기억합니다. 우리에게서 제사장직이 있고, 제사장들을 도우며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들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서술에 나타나는 차독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름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독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차독이 성전과 관련된 원시-사두개인 운동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한 연관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식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물론 명심해야 할 점은 쿰란 공동체에 속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을 깨끗하고 정결한 제사장 직분의 표현으로 여긴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특히 이 본문의 신학적 서론에 빛의 왕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개인은 어둠의 천사와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그 뒤에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있으며, 그것은 모두 그 대격변의 전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 공동체? 확실히 그랬습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계율에 관한 이 문제로 돌아가면, 공동체 내에는 절차가 있었고, 승인, 토론, 심의 측면에서 협의회가 처리한 특정 사항이 있었고, 협의회 내에는 분명히 위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인물 목록에서도 우리는 제가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약간의 내용을 통해 이 커뮤니티의 성격에 관해 흥미로운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검토하자면, 대부분의 신학적 개념,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요세푸스가 자신이 에세네파라고 알고 있는 그룹을 설명할 때 우리를 위해 설명할 개념입니다. 이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결정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정으로 나타나며 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은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내부에도 인류학적 이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는 한편으로는 진리의 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그날 유대교의 다른 표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지만 확실히 이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노란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약, 언약, 언약,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일들과는 대조적으로 새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자면,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속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에서는 이 공동체, Tzadok의 아들들, 의식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 속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1qs 텍스트에서는 여러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아론의 메시아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함께 모인 직분을 통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역할과 위대한 왕이 예수 안에 있지만, 이 공동체에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별개로 간주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 특별한 본문에 언급된 선지자도 있습니다. 훌륭한 독서가 됩니다. 사소한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더 넓은 유대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결되는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중 일부는 1세기에 유대 기독교 관습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는 정화수를 뿌려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물, 담그는 것, 뿌리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층 구조가 강조됩니다.

비록 경제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의회 내에는 계층화가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들은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함께 먹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특별한 식사이고, 그 일반적인 식사의 일부가 되는 데에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공동으로 심의하는데, 구약 공부는 필수적이다. 항상,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24시간 내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사야 40장 3절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부르시는 음성,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는 광야에서 부르시는 음성,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물론 광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구는 매우 흥미롭고 그것을 덧붙이면 물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토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있어 정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즉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공동 식사 및 이 커뮤니티의 일부인 기타 사항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완전히 회원이 되기까지 2년의 견습 기간이 있었으며, 물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와 위원회의 몫이었습니다. 주인님도 그 일부였지.

글쎄,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 특정 처벌을 받게 된다는 목록을 읽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 처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종종 저는 이것을 수업 시간에 읽어 주며, 우리는 재미있는 유사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고, 비방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일이고,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네 글자 곧 하나님의 이름인 네 글자를 발음함은 주의 이름을 헛되게 높이지 말라 명하신 계명을 저희가 심히 심각히 받아들였음이니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즉시 커뮤니티에서 탈퇴됩니다.

그 경우에는 벌금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위반 사항 중 일부는 집에 조금 더 가깝게 발생합니다. 어리석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니면 채플 중에 잠을 자면 벌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이라고 했나? 처벌을 받을 만한 의회. 동료 앞에서 알몸으로 나가는 것도 그들의 마음 속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당신은 비공개여야 했던 것들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침을 뱉지 않지만 종종 어리석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으며, 둘 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만합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의 경직된 성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지역 경찰이 출동해왔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잠시 동안 공동체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한 종교적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음식이 급격하게 배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하느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추방이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커뮤니티 규칙에 대해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이 좀 더 탐구하도록 격려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커뮤니티를 정의하는 것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 논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해설 부분은 여러분이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전체 텍스트가 아닙니다.

일부 부품이 누락되었습니다. 약간의 격차가 있지만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셔(pesher)는 해석을 의미하는 특정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해석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 이는 그들이 이 텍스트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석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이든 그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재정비하고 수정했지만, 그 본문이 마지막 날에 자신들이 인식한 대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점을 명심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성경 구절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문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중은 구절 전체를 알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청중은 아마도 성경책 자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특정 구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pishro 가 따라옵니다. 경이로운 접미사는 명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설명입니다. 괜찮은. 그것이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요약한 것처럼,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적 본문이나 본문의 일부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읽고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나훔에서 재앙적인 재난이 예언되었고, 하박국에서 예언되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재정비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현대적 맥락에서 일어날 일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나훔의 주된 적이다. 바벨론은 하박국 시대의 주된 적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Kittim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전체 문제입니다. 다니엘서에 키티(Kittim)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서부 어딘가의 섬들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들은 매우 분명하게 로마인입니다.

나는 특히 하박국 주석에서 그것이 어떻게 명확해지는지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로마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로마 군대가 느껴지기 시작한 2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셀레우코스 왕조와 헬레니즘의 영향이 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도 로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머지 유대인들에 대한 쿰란 공동체의 투쟁을 상징할 것입니다.

아, 거기 있어요. 그들만이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쟁은 하박국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박국이 시작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텍스트에 대한 도전은 그것이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 사람이나 사람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라벨을 사용하며, 그 사람이 누구일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약간의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있으므로 적어도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그것들을 삽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Nahum Peshar를 사용하여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왜 나훔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작은 텍스트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사야서의 일부에도 페세르의 단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은 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내가 말했듯이 나훔이 앗수르에 대항하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문제를 형성하는 성경 본문의 완벽한 텍스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주요 인물은 서쪽에서 천천히 침략해 오는 로마인을 대표하는 키팀(Kittim)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성난 젊은 사자로 상징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훔 2장에는 사자, 새끼 사자 등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사나운 젊은 사자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텍스트 또는 그 일부를 우리 앞에 올려 놓을 것이므로 조금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 번역에서는 매끄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매우 흥미로운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여기에 있고 우리는 그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좋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텍스트가 앞에 나와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나훔 페셔(Nahum Peshar)에는 이름이 붙은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즉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인지, 언제 그것이 적합한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장면에는 여러 명의 Demetriuse 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안티오쿠스 가 있습니다. 매우 형편없고 아마도 잠자코 있는 내용을 읽고 싶다면 이 시기에 요세푸스를 읽어 보십시오. 모든 상호 작용과 상호 작용 및 진행 중인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여러 문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한 후에, 우리가 가능한 역사적 연관성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경 본문 자체의 일부를 인용하여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Peshar 텍스트를 여기에 올려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글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훔 2장에는 나훔의 예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나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가 가는 곳에는 사자 새끼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음, 여기 Peshar 텍스트가 있습니다.

피슈로는 원활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회의를 구한 이집트 왕 데메트리우스에 관해 이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왕이고, 그것은 아마도 모든 종류의 나쁜 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순조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회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녀는 안티오코스 시대부터 깃뎀 통치자가 올 때까지 그리스 왕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데메드리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어딘가의 헬레니즘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안티오쿠스(Antiochus)라는 기간을 봅니다. 세 번째야?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그리고 나서 Kittim의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특히 기원전 160년과 그 이후에 그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썄요, 먼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순조로운 일을 추구하는 이들 구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물었던 질문은 '그들은 누구였습니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을 그다지 우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매끄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발음을 들어보세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라콧 . 다시 말하겠습니다.

할라콧 . Halak은 미끄럽거나 매끄러우며, 미끄럽거나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Halakot , 부드러운 것.

끝이 없어요. 즉 복수형 여성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매끄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라콧 . 이제 다른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Halakot을 들었습니다 .

이제 전환하겠습니다. 유사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할라콧 .

할라콧 . 할라카는 당신이 걷고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걷다, 가다라는 뜻의 Halakot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우리 무리는 나중에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원시 바리새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것, 즉 Halakot을 다루는 데 매우 관심을 가졌습니다 .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여기에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매우 흥미로운 말장난과 비밀스러운 언어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끄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시 바리새인 운동은 Halakot 에

관심을 두는 반면, 이것은 별로 좋지 않으며 아마도 기만적일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랍비 문학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시 보게 될 용어입니다.

Halakot를 끝내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기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 심지어 이 나훔 폐셔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여섯 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건 그렇고, 나훔 폐셔(Nahum Peshar)는 매우 짧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주목받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 사람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배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미끄러운. 할라콧. 미끄러운.

그 후 거짓 가르침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쫓아냈습니다. 이는 북방 왕국과 지파 지역이었던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들의 이름으로, 나훔서 자체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자체가 있고, 그리스를 보고, 핵심 팀을 보고, 순조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이고 모두 공동체에 반대하는 자들이므로 모두 공동체의 적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에게 약간의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에서는 본문 바로 직후에 잠시 전의 사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자는 동굴을 먹이로 채우고 굴을 희생자로 채웁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있는 굴.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석, 폐쉬로. 이것은 평탄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복수를 집행하는 분노한 젊은 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맹렬한 젊은 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순조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을 쫓거나 요세푸스가 바리새인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산채로 매달았습니다. 산 채로 나무에 달린 사람 때문에 그는 외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용문을 인용하여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경 인용문입니다. 잠시 제쳐두고, 이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든지 성경 본문과 어떻게 그토록 많은 부분을 연결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확실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지만 자신의 맥락에서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메모를 한 다음, 이 목매달린 남자가 살아있고 분노한 젊은 사자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 자료에서는 십자가형이 산 채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시체만 나무에 매달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토라에 따르면 시체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본문은 누군가가 나무에 매달리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줍니다. 십자가 처형, 로마인들이 많이 사용했지만 그 이전에도 행해졌던 일이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랬지만 십자가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페세르 본문,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원전 1세기 초의 알렉산더 얀나이우스(Alexander Jannaeus)라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유대 전쟁에 대한 요세푸스의 설명에서 축약된 부분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해왔던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경우, 그의 분노가 너무 커져서 그의 야만성은 불경한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800명을 도시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목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첩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있을 때 이러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그 앞 부분의 전임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의 반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대항하여 일어난 전체적인 반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폭력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같은 종류의 것을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세푸스의 인용문은 알렉산더 야나이우스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추가적인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고대 유물 중에서 전쟁 대신 요세푸스의 고대 유물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Alexander Jannaeus에 관해서는 그의 동족이 그에 대해 선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념되었던 축제에서 이것은 초막절 또는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가 제단 위에 서서 제사하려고 하려니 백성이 일어나서 그 절기의 네 가지 과일 중 하나인 유자를 그에게 던지니 유다인의 율법이 이를 명하였으므로 유향을 손에 가졌더라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와 유자나무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를 포로에게서 나온 사람이라 그의 존엄성과 희생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욕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그들 중 약 6,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을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확실히 Alexander Jannaeus의 성격을 볼 수 있으며 이 본문, 이 나훔 주석서가 실제로 분노한 젊은 사자와 십자가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관성을 만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좋아, 이 특정 텍스트는 그것을 참조하고 있다면 기원전 1세기 초에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동하여 하박국 폐세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맛, 그렇게까지 돌아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폐세르의 일부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바로 앞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이전 칼럼의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Peshro가 있습니다. 괜찮은.

그리고 그 지점을 넘어 계속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히브리어를 읽는 분들은 이것을 조금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구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경을 추가하기 위한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하박국서의 첫 장을 읽을 때 첫 여섯 구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모든 악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토라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먼저, 그는 내부의 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가 그 불평을 주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은,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주제를 선택한 다음 2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굴절시켜 보겠습니다.

정말 빠른 요약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콤란 공동체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굴절시키십시오.

하박국이 다시 기억하고 있는 이 내적 악은 기원전 7세기 말과 6세기 초, 즉 586, 587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기 직전인 우리의 6세기 시대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을 위해 설명한 내면의 악, 콤란 공동체는 그 설명을 받아들여 우리가 경험해 온 악하고 유대교 자체의 일부인 매우 끔찍한 인물들이 등장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상황.

그 중 한 사람은 악한 제사장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내부 악은 사악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구현되며, 그는 또한 그에게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라는 다른 명칭을 붙입니다.

하박국 주석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시겠지만 핵심팀이 오는 것이겠죠? 핵심 팀은 로마인들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인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쿨란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통해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벤트를 조금 재구성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텍스트 자체에서 조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주석이 이를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부패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더 읽고 싶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2세기, 더 넓은 헬레니즘적 맥락에서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신권을 사고 파는 성전 맥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부패하다. 그래서 그는 그 험난한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성전도 더럽혀졌습니다.

그 결과 이 본문에서 의의 선생, 의의 선생으로 거듭 불리는 인물이 처음에는 악한 제사장을 반대하다가 결국 소수에 속하고 그의 무리가 탈퇴하여 언약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대결이 얼마나 추악했는지에 대한 작은 조각을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용을 얻으려면 전체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맥락에서 설명되는 더 끔찍한 사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의 두 번째 부분은, 자기의 독을 쏟아 취하게 하고 그들의 벌거벗음을 바라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일부 번역 문제는 폐사가 표현하는 방식 측면에서 해당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절입니다. 자, 우리 쿨란 공동체인 피쉬로(Pishro)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악한 제사장은 의의 교사 모레 제덱(Moreh zedek)을 그의 집까지 쫓아온 사악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망명, 그는 그 구절과 연결된 그의 독한 분노로 그를

혼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속죄일에 안식할 때를 정하셨다면 금식하는 안식일인 그 날에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넘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금식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년 중 가장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한 세대 전만큼은 아니지만 속죄일에는 기본적으로 폐쇄됩니다. 그러나 여기 누군가가 있습니다. 악의가 많고 의식 달력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시하는 사악한 사제가 명백히 위안과 쿨란 공동체의 안식처로 나와 정의의 교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마도 우리가 다음에 다른 텍스트에 대한 약간의 도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1년 364일 태양력에 따라 기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쿨란 문헌을 읽어보면 그들이 태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합니다. 유대교의 다른 부분은 소위 음력 달력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귀족과 예루살렘 계층이 아마도 이것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 대결 뒤에 흥미로운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달력이 달랐기 때문에 그의 속죄일도 달랐습니다. 글썄,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이는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와 이를 작성한 커뮤니티를 역사적 맥락으로 밀어넣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악함과 공포에 대한 이 공동체의 인식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약간의 이해를 제공하며, 그들이 어떻게 조각조각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여기 세 번째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달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제안은 아마도 이 텍스트, Q4, Qumran, 그리고 MMT가 Miqsat 라는 것입니다. 마아세 하토라. 이 텍스트의 한 부분이 좀 더 화해적인 어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즉, 텍스트의 저자가 청중에게 다시 모여서 이러한 차이점 중 일부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제사장이 공동체에서 의의 선생을 쫓는 하박국 페세르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어조입니다. 그래서 제안은 그것이 정말로 좀 더 화해적인 어조를 반영한다면 조금 더 일찍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설립이 무엇이든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Miqsat 표현 Ma'ase는 토라의 일부 계율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직사각형이 어디에 있는지는 약간 모호하지만 텍스트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관계 서신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텍스트에 식별 이름을 부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신학적 주제를 풀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는 쿰란 공동체가 다른 달력에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텍스트 중 일부에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지만 이 텍스트에는 아마도 첫 번째 부분에 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 왜 그렇게 잠정적이야? 음, Miqsat QMMT에 대한 Ma'ase Ha-Torah 텍스트는 실제로 동굴 4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4번째 동굴은 분명히 이 공동체의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동굴은 나머지 동굴과 달리 항아리에 두루마리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존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그냥 선반에 보관해 두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분해되어 떨어지면 아주 작은 조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특정 텍스트는 여섯 개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일종의 합성 텍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 전체였을 수도 있는 내용을 하나로 맞추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달력 문제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순결함과 관련된 주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은 레위의 내용과 신명기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순결의 원칙, 순결을 유지하는 원칙, 순결을 이해하는 방법, 성전, 예루살렘, 영역에서 순결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의.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분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저자의 입장에서나 부분적으로 분명히 예루살렘 설립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일환으로 저자는 여러분이 모세서, 선지자서, 다윗서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물론 dor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과 시편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연대기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연대기로 알고 있는 것, 족보에 호소하는 것, 문 중의 문.

또 다른 신학적 주제.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부분의 주요 정결 부분에는 중요한 처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그먼트입니다.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바로 거기에 Sepher Mo가 보입니다 .

그런 다음 계속해서 함께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 David와 문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이것이 모세의 토라에 대한 쿤란 공동체의 어떤 의미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구성 요소인 네비임, 선지자,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번째 부분이 연대기까지였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두루마리에 담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내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쿰란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썬요.

지금까지 3개의 텍스트, 실제로는 4개의 텍스트, 2개의 개별 압력 텍스트를 매우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는 쿰란 공동체,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간단한 썸네일 스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동체로 발전한 수년 동안 쿰란에 살았던 사람과 기독교 사이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들 중 하나를 모놀리식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초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른 유대인 저작물만큼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둘 다 보수적이고 독실한 사람이다. 이것의 맛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둘 다 묵시적인 지향을 갖고 있으며 매우 분명하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와 쿰란 자료 모두 토라를 대표하는 신명기,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사야, 세 번째 부분을 대표하는 시편에서 중요한 인용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과 그 안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명확하고 명확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기대.

그리고 꽤 다르지만 Qumran의 Cave 11 두루마리는 주로 심판하는 인물로서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쿰란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깨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이 내주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 용서, 기도, 물의 상징주의가 세례라는 관점에서 들어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간단한 스케치일 뿐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쿰란은 폐쇄된 커뮤니티입니다.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대체로 금욕적인 공동체였고, 선교적 열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해 본문의 관점에서 볼 때 꽤 분명합니다. 그 작은 곳이 아니었다면, 그곳은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어, 분명히 금욕주의와 의식적 순수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요세푸스는 실제로 결혼한 일부 에세네파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세푸스가 특정 에세네파 그룹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결혼한 것입니다. 어, 쿰란 사람들은 적을 미워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아마도 그들 자신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쇄된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2년의 견습기간을 거친 후에만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층 구조는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미 쿰란의 태양력도 언급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요약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요약해서 진술합니다. 두루마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pishro 등의 해석을 매우 신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지만 두루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의의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왕국 비유에는 왕국에 대한 깊은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작가들이 명확하게 글을 쓰고 있지만 두루마리

공동체는 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도 하기 위해 글을 쓰고 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당신은 안식일법에 있어서 쿰란을 극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 5세에서도 보고, 요한 9세에서도 봅니다.

그리고 물론 마가복음 2장의 끝과 3장 사이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제기된 이러한 도전을 봅니다. 쿰란 문맥에서는 부활이 명확하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기원전과 서기 1세기 유대교의 측면에서 정말 매혹적인 배경을 제공하더라도, 음,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쯤에 기독교와 인터페이스하려는 시도는 쿰란과 초기 기독교가 실제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은 이사야서 두루마리이고 우리는 동일한 고전적 대본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사야 40장을 일종의 시금석 구절, 즉 광야에서 부르짖는 자의 음성으로 이 본문의 그 지점에 올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입문 강의가 시작될 때 우리가 말했던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 쿰란에서의 이 발견은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소라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온 원문 전통의 신뢰성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인클로저를 검토해 보면 지금까지 11개의 동굴, 800개의 사본, 특히 4번째 동굴 때문에 엄청난 수의 파편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히브리어 언어의 발전과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 역사.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유대교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 그냥 다시 꺼내놓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1세기 유대교가 단일체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랍비 자료를 다룰 때 그 점을 다시 언급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추가 정경

문헌에 관해 몇 가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풍부한 자원에 대한 감각에 기여합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세션 13, 선별된 사해 본문입니다.